



반갑고 재미있게! 서친숲 체험마을

정봉희 | 충남발전연구원 홍보팀장



충청남도
마을기행

“숲이라는 글자의 생김새는 숲과 똑같다. ‘숲’의 어감은 깊고 서늘한데 이 서늘함 속에는 향기와 습기가 번져있다” – 김훈의 ‘자전거 여행’ 중에 나오는 한 구절이다. 숲이라는 단어는 이처럼 생김도 느낌도 우리에게 친숙하고 다정다감하다.

마을사업 중심에 숲이 있다면? 그리고 자연과 더불어 사는 인간의 자유를 함께 나누고 싶다면 얼마나 좋을까! 바로 충남 서산시 인지면 산동1리 ‘서친숲 체험마을’은 도비산 자락에 자리잡은 녹색마을 이자 숲이 어울리는 곳이다.

2011년 농림수산식품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에 선정되면서 마을 주민 36명의 발기(대표 한기용)로 서친숲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했다. 첫 사업자금은 3억원. 체험마을 조성사업을 시작으로 2012년 어느 정도 기반이 완성되었다.

이 마을은 우선 전통장류 제조를 통하여 마을주민이 함께 일하는 것이 최우선 사업이다. 콩을 함께 심고 수확해 장을 만들어 판매까지. 비록 큰 시설이나 비용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사업 하나 하나에 성취감과 동료애를 느낀다고 한다.

여느 마을사업이 그렇듯이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봐도 된다. 우선 서친숲이란 명칭은 마을 주민들의 공모로 선정된 이름이라고 한다. 웬지 낯설지 않고 정감어린 서친숲을 풀어보자면 한자어는 상서로울 서(瑞)와 친할 친(親). 숲과 친함이 상서롭다는 뜻이라고 하는데 단순히 도비산 자락의 숲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듯하다.

한기용 대표(52세)를 중심으로 시작된 체험사업은 초창기 마을 내부에서 갈등이 있었다고 한다. 다름 아닌 기존의 농촌에서의 삶의 관행을 벗어던지기가 어려웠고 공동의 이익이 아닌 자기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려는 마음가짐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여느 체험마을의 초기 모습은 대부분 비슷한 듯하다. 이를 잘 극복하느냐 못하느냐의 첫 단추가 매우 중요해 보인다<필자>.)

한 대표는 이 마을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서울에서 15년간 자영업 을 하다가 귀향하게 되었다고 한다. “우리 고향만큼 시골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이 없다는 자부심이 강했고, 이를 잘 가꾸고 보존해야겠다는 생각이 잘 맞아 대표까지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현재 마을사업에는 총 75가구 중 42가구가 참여하고 있지만, 실제로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가구는 6가구에 불과하다고 한다. 한 대표는 “그렇다고 운영이 안 되는 건 아니고, 필요한 경우 함께 도와준다.”며 “비록 마을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가구라 하더라도 장류를 만들기 위한 콩 등은 시중보다 조금이나마 더 좋은 가격에 사들인다.”고 말했다.



〈서친숲 체험마을 한기용 대표〉



서친숲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요한 체험프로그램은 숲속체험과 승마체험이 있고, 미리 언급된 된장, 고추장, 청국장, 간장 등 장류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이다.

첫째, 지역자연자원을 활용한 체험관광사업으로 도비산 자락의 숲과 세모방죽을 중심으로 한 산책로 조성으로 자연 속에서 도심의 스트레스를 순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도비산에는 임도가 잘 만들어져 있어서 트레킹 코스로도 제격이다.



〈숲속체험〉

둘째, 농촌의 장점인 공간의 자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 레저스포츠의 개발로 도심에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종목을 경험함으로써 대자연속에서 호연지기를 느끼고 자연의 자유로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 대표는 “처음부터 승마체험을 하려던 건 아니다.”면서 “애초엔 열기구를 타고 천수만의 철새 탐조를 계획했는데 인근 공군기지의 반대로 계획을 변경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현재 마을에는 6필의 승용마를 구입했고 안전 교육까지 이수하여 체험객이 안전하게 말을 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말 구입은 정부가 지원한 게 아니라 순전히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아 구입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따지고 보면 아직 승마체험이 마을의 효자노릇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많이 알려지지도 못했고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체험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고.

셋째,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직거래 유통으로 정성과 자연의 맛이 살아 있는 농산물의 가공으로, 농업 생산물의 판매가 제고 또는 부가가치를 더한 생산 판매로, 수익증대에 직접 기여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농산물의 포장 판매 유통사업과 장류 제조사업을 들 수 있다.

이 마을 주민들은 일명 ‘마리틀 장류’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 어디에 내놔도 그 맛이 일품이라는 것인데 현재 큰 항아리가 90개, 작은 항아리는 30개로 총120개가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마을에 가 보니 온통 콩밭이다. 칠갑산 콩밭 때는 아낙이 전부 서친숲으로 와야 할 모양이다. 마을 주민들은 아침에 항아리 열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해 저녁에는 다시 항아리 닫는 것으로 일과를 끝낸다. 한 대표는 “이곳 아주머니들이 손맛이 너무나 좋고 무엇보다 이곳의 자연(햇볕, 바람)이 만들어낸 ‘장’이어서 더욱 맛이 좋다.”고 자랑했다. 그러면서 요즘은 표고버섯 재배로 재미가 쏠쏠하다고 귀띔해주신다.





지난해 이 마을에 방문한 체험객은 500명 남짓. 체험사업과 특산물 판매 매출을 합해도 1000만 원 정도다. 소위 잘나간다는 체험마을 매출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편이다. 아직 체험객은 서산을 중심으로 한 주변 초중학생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한 대표는 “매출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지만 우리는 누가 시켜줘서 하는 사업도 아닐뿐더러 급하게 먹는 밥에 체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필자가 ‘그럼 주변에 부러운 체험마을이 있지 않느냐’ 되물었더니 ‘우리 마을이 가장 좋다’며 자부심이 대단하였다.



〈서친숲 안내도〉



〈체험장 및 공 가공실〉



〈마을에 울려 퍼지는 확성기〉



〈콩밭이 유독 많다〉



〈마을 전경 1〉



〈마을 전경 2〉

마을 주민들은 마을사업의 필요성도 인정하지만 체험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농촌 사람의 리듬이 무너져버려서 오히려 안 좋게 생각하고 있었다. 물론 ‘역량이 부족하네~’, ‘교육이 더 필요하네~’라며 진단과 처방을 내릴 수도 있지만 말이다. 아마 이 마을 나름대로 마을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타협점을 찾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다.

아직 사업기반이 완성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선불리 성패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일이기도 하거니와 성공과 실패의 판단 기준 또한 숫자놀음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문득 스쳐 지나간다.

서친숲의 비전은 “반갑고, 재미있게”라고 한다. 만나는 이, 만나는 것, 풀 한포기, 날아가는 새 뿐만 아니라 산허리에 앉아있는 바위나 흐르는 물에게도 반가움을 느낄 수 있는 마을 주민의 마음이 중요하다. 마을 주민이 체험객을 반갑게 맞이할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누군가에게 체험을 오라고 떳떳히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체험객도 마을주민과 마음을 터놓고 지낼 수 있는 것이고 편하고 행복한 농촌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왼쪽부터 한기용 대표, 박선자 총무, 안정선 팀장〉

한 대표는 이렇게 말한다. “현재 우리 마을은 그저 돈을 벌기 위한 체험에 급급했다.” 그러면서 이걸 바꿔보려 한다고. 농촌 체험은 온전한 나를 보여주지 않으면 비웃음을 살 뿐. 그러기에 지금의 체험마을 사업은 사업목표에 비해 너무 형식적이고 외형 위주의 사업 진행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한 대표는 “우선 마을 주민들이 행복해져야 한다. 그것이 마을 주민 전부가 아니어도 어쩔 수 없다. 그러려면 우리의 가치를 좀 더 정확히 느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우리의 치부를 일부러 감추면서 보여주기 위한 포장이 아닌 우리 안에서 서로 반갑고 재미있게 지낼 수 있으면 성공이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모습... 앞으로도 계속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